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기념 시화전  
광주시화협회·도서출판 앤바이올렛  
12~28일 전일빌딩 245… 77명 참여

##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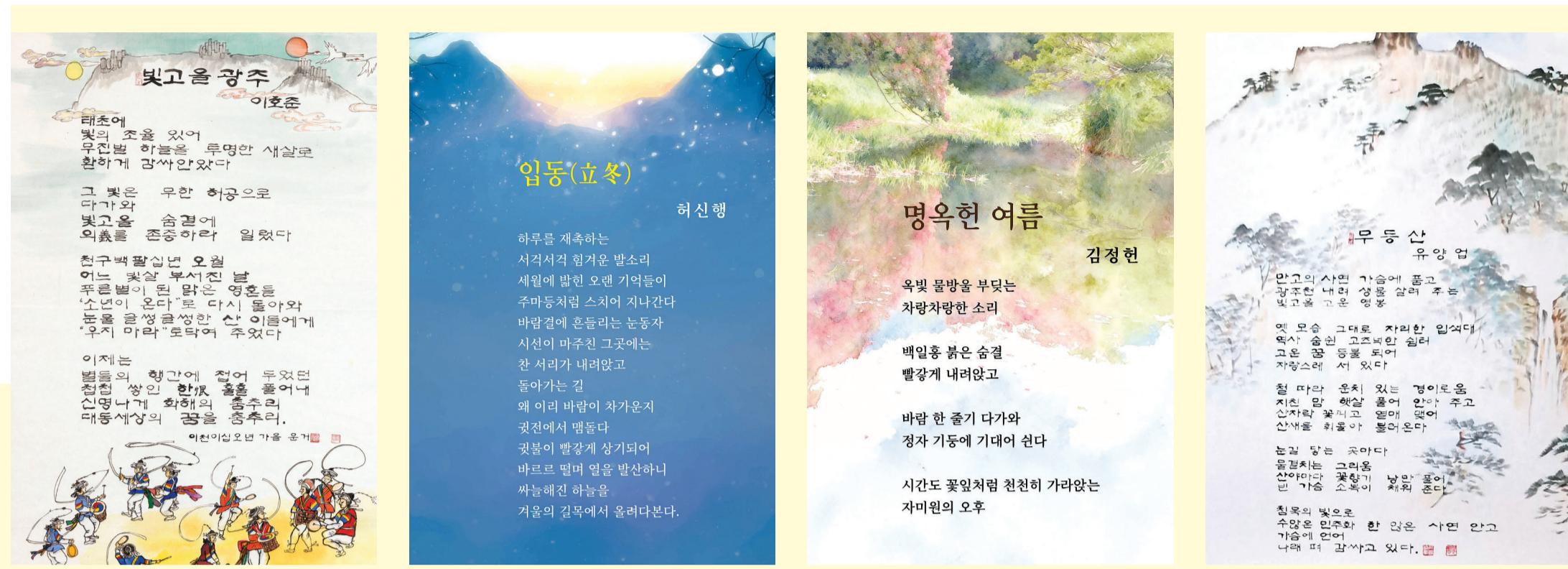
# 위로가 되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쾌거였다.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이정표이자, 향후 한국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었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동안 타 장르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K-문화의 지평을 확장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한류에 K-문화가 가세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자장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하는 시화전이 마



련데 눈길을 끈다. 12일~28일 전일빌딩 245이며 주제는 ‘시(詩) 위로가 되다’. (개막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광주시화협과 도서출판 앤바이올렛이 주최하고 한글날 100주년 기념문화예술협이 주관한다.

대회장을 맡은 이호준 시인이자 한국화가는 “2004년 한강 작가는 섬세하면서도 깊은 인간성의 통찰로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며 “그 감동의 여운을 안고 광주에서 열리는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시화전은 단순한 기념의 장을 넘

어 문학과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마음을 밝히는 ‘감성의 축제’가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시화전에는 시인, 화가, 문인 등 모두 77명이 참여한다. 광주 전남 지역 시인도 27명이 참여한다. 강덕순, 강복래, 기옥란, 김영순, 공난숙, 권지현, 손영란, 신명희, 오소후, 유양업, 장문자, 최기숙 등이 작품을 냈다.

한강 작가의 고향이 광주인데 행사 장소도 광주이기 때문에 ‘빛고을’, ‘무등산’ 관련 작품들이 눈에 띈다.

“태초에 / 빛의 조을 있어 / 무진벌 하늘을 투명한 새살로 / 훤히 감싸안았다” / 그 빛은 무한 허공으로 / 다가와 / 빛고을 솜결에 / 의(義)를 존중하라 일렀다 / / 천구백팔십년 오월 / 어느 빛살 부서진 날 / 푸른별이 된 맑은 영혼들 / ‘소년이 온다’로 다시 돌아온다. 시는 신명난 화해의 춤, 대동세상의 꿈을 희원한다는 내용이다. 흥겨운 농악 그림을 배경으로 형상화된 시는 ‘빛고을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유양업 시인의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 무등을 묘사한 작품이다. 시인은 빛고을의 고운 영봉이라 칭한다.

“(전략) // 눈길 달는 곳마다 물결치는 그리움 산야마다 꽃향기 낭만 풀이 중다”

토닥여 주었다 // 이제는 별들의 행간에 접어 두었던 / 첨집 쌍인 한(恨) 훌훌 풀어내 / 신명나게 화해의 춤을 춤추리”(빛고을 광주)’

이호준의 ‘빛고을 광주’는 직접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이다. 빛고을에 스며든 빛이 의를 존중하라 했지만 80년 5월, 빛살은 부서져버렸다. 그러나 ‘푸른별이 된 맑은 영혼들’이 ‘소년이 온다’로 다시 돌아온다. 시는 신명난 화해의 춤, 대동세상의 꿈을 희원한다는 내용이다. 흥겨운 농악 그림을 배경으로 형상화된 시는 ‘빛고을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현덕 추진위원장은 “이번 1주년 기념행사는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하며 시(詩)를 통해 국민이 위로받고 융합하는 계기가 되고자 기획됐다. 시인은 빛고을의 고운 영봉이라 칭한다.

“(전략) // 눈길 달는 곳마다 물결치는 그리움 산야마다 꽃향기 낭만 풀이 중다”

준다 // 침묵의 빛으로 / 수많은 민주화 한 많은 사연 안고 / 가슴에 안아 / 나래 펴 감싸고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한경그룹이 후원한 제1회 한컴 문학상 대상 수상자 신명희 시인의 작품도 관객을 맞는다.

개막식이 열리는 13일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식전행사로 김미경, 기행순이 시낭송을 하고 김성밴드 연금술사, 김태훈, 안혜경이 공연을 펼친다. 유양업은 ‘신아리랑’, ‘내맘의 강물’을 선사한다.

정현덕 추진위원장은 “이번 1주년 기념행사는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하며 시(詩)를 통해 국민이 위로받고 융합하는 계기가 되고자 기획됐다. 시인은 빛고을의 고운 영봉이라 칭한다. 시는 신명난 화해의 춤, 대동세상의 꿈을 희원한다는 내용이다. 흥겨운 농악 그림을 배경으로 형상화된 시는 ‘빛고을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유양업 시인의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 무등을 묘사한 작품이다. 시인은 빛고을의 고운 영봉이라 칭한다.

“(전략) // 눈길 달는 곳마다 물결치는 그리움 산야마다 꽃향기 낭만 풀이 중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또 하나의 국가폭력” 오월 어머니들 ‘1980 사북’ 만난다

###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오늘 독립영화관 상영

광주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또 하나의 아픔과 손을 맞잡는다. 오월 어머니집이 사북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을 단체로 관람하며 국가 사과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연대 행동에 나선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오는 10일 오후 4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1980 사북’(사진)을 상영한다.

다큐멘터리는 1980년 4월 강원 청선 사북광업소 노동자들이 저임금·여용노조에 맞서 별인 항쟁을 기록한 작품이다.

광부들은 폭도로 돌변했고 신군부 비상계엄 체제 아래 계엄군이 투입되는 등 상황은 일축즉발로 치달았다. 항쟁 이후 광부와 가족들은 고문·폭행·성고문 등 극심한 국가폭력에 노출됐고 ‘폭동’의 낙인이 지워지지 않은 채 45년을 견뎌야 했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사과도, 명예회복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영 후에는 박봉남 감독과 오월 어머니집의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주홍 작가가 관객



과 만난다. 두 사람은 사북항쟁의 기록 과정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예술적 치유 시도 등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단체관람은 같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지난 5·18 피해자 공동체가 사북항쟁과의 연대의 뜻을 밝힌 자리다. 5·18 관련 영화 ‘김군’의 배급사 ‘풀’의 최낙용 대표의 제언으로 시작됐으며, 이상훈(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장과 김현미 오월 어머니집 관장이 함께 준비했다.

이 이사장과 김관장은 “이번 관람을 계기로 사북

항쟁이 정당한 노동·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무인도에 표류한 남한군·북한군의 ‘여덟 번째 딴짓’

### 문화공동체 딴청, 13~14일 서빛마루문예회관

한국전쟁의 한복판, 우연한 사고로 무인도에 함께 표류한 남한군과 북한군.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손을 맞잡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의 과연 이고립된 섬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광주 청년뮤지컬 단체 ‘문화공동체 딴청’이 오는 13~14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4회에 걸쳐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 공연 ‘여덟 번째 딴짓’을 선보인다. 딴청이 매년 이어오고 있는 정기 기획 공연으로, 올해는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화해와 연대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

‘여덟 번째 딴짓’은 한국전쟁 시기 우연히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한군과 북한군이 갈등과 협력을 오가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서로를 적대하던 두 인물이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되고, 함께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를 통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과정이 중심 서사다. 서로를 적대하던 두 인물이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되고, 함께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를 통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과정이 중심 서사다.

인간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순간을 따뜻하게 포착하며 이해와 화합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편 딴청은 2018년 광주에서 창단된 청년 뮤지컬 단체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20~30대 청년들이 기획부터 제작, 연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며 매년 창작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비방’ 등으로 지역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다.

김유경 딴청 대표는 “이번 작품은 전쟁·분단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 올해의 소설에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가 ‘소설가 50인이 올해의 소설 1위’에 뽑혔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안녕이라 그랬어’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출간된 소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추천 방식은 소설 창작자이자 독자인 소설가들에게 1~5권까지 작품을 추천받아 진행했으며, 모두 95권이 목록에 올랐다.

1위에 오른 ‘안녕이라 그랬어’는 호소력과 딜레마적 물음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공간’이 놓여 있다.

김애란 작가의 이번 1위는 지난 2017년 소설집 ‘바깥은 여름’, 2024년 장편 ‘이중 하나는 거짓말’에 이어 세번째다. 그만큼 김작가의 작품이



소설 창작을 업으로 삼고 있는 동료 작가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2위는 상상력과 탄탄한 구성, 실현적 시도가 빛나는 구본모 작가의 ‘절정’이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모두 4권의 소설이 선택을 받았다. 정아현의 ‘노 피플 존’, 이기호의 ‘영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김혜진의 ‘오직 그녀의 것’, 성하나의 ‘흔모노’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